



정원 및 화단용 산부추 재배기술

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Flower Bed
of *Allium thunbergii* native to Korea.



송 정 섭

농업연구관, 이학박사
(031-290-6159,
songjs@rda.go.kr,
www.wildflower114.com)

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
(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
Institute, RDA)

산부추(*Allium thunbergii*)는 산마늘, 산달래와 같은 백합과 식물이며 속명도 파속(*Allium*/‘맵다’, ‘냄새가 난다’라는 뜻의 고대 라틴어) 식물로 같다. 키가 크지 않고 꽃모양도 좋아 화단이나 정원의 반그늘 진 곳에 모아심어 두면 관상가치도 있지만 산마늘 등과 함께 자양, 강장 등의 건강식품으로도 있어 최근의 웰빙트랜드와도 잘 어울리는 식물이다. 중부 이북의 낮은 산에 지금도 흔히 분포한다. 유사한 것으로 꽃이 조금 더 빨리 피며 적자색인 참산부추가 있는데 산부추보다 꽃 모양이 좋아 분화용으로도 잘 어울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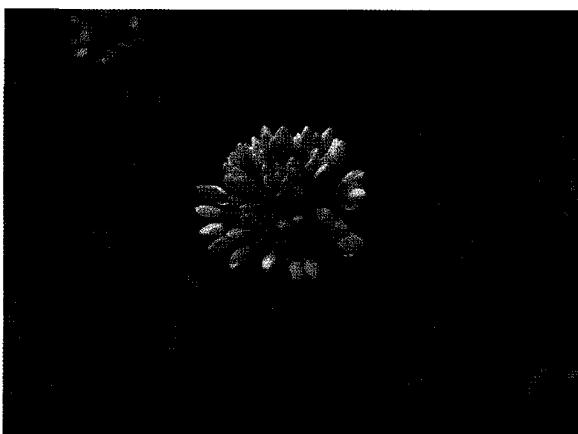
1. 생리생태 및 이용

산부추는 추위에는 강해 전국에서 월동이 가능하지만 음지에 약하고 특히 습해에 매우 약하다. 키는 30~60cm 정도 자라는데 꽂은 8~9월에 붉은 보라색으로 핀다. 뿌리는 인경이며 길이가 2cm 정도 되고 인경 밑 부분에서 잔뿌리가 내린다. 파속식물로는 세계적으로 약 700여 종이 분포하고 있는데, 우리나라에는 산마늘, 참산부추, 두메부추 등 7종 2변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. 국내에도 많은 품종들이 도입되어 허브나 꽃꽂이용 등 원예적으로 재배 이용되고 있다.

2. 재배기술

가. 생육환경 및 생육습성

부추는 저온성 식물로 생육적온은 20°C전후이다. 5°C이하로 낮아지면 생육이 멎고 25°C이상으로 올라가면 잎은 자라지만 웃자라는 경향이 있다. 토질은 특별히 가리지 않지만 배수가 좋은 비옥한 양토 또는 사양토가 좋다. 산성토 양에서는 생육이 나쁘고 잎 끝이 마르는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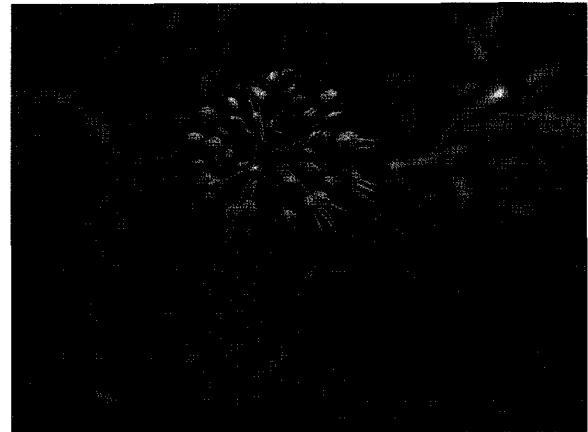
▲ 두메부추꽃

가 많으므로 토양산도를 6.5 전후(6.0~7.0)로 교정해 주는 것이 좋다. 꽃눈은 고온장일인 6월 상·중순부터 만들어지며 7~8월에 추대하여 8~9월이 되면 꽂대가 30cm 이상으로 뻗어 나오며 수십 개의 분홍색 꽃이 공 모양으로 달려 편다. 본격적으로 생육하게 되면 분蘖이 왕성해져 포기수가 증가하므로 종자파종하는 것 보다 주로 포기나누기로 번식한다. 분蘖은 7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가을까지 계속되며 잎수가 꾸준히 늘어간다.

나. 번식

종자번식과 영양번식 모두 잘 된다. 계획적으로 재배할 때는 주로 종자번식을 하게 된다. 종자를 뿌릴 때는 별도의 파종상자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균일묘를 대량으로 얻는데 유리하다. 종자의 발아적온은 20°C로써 파종하기 전 물에 20시간 정도 담갔다가 꺼내 그늘에서 말려서 뿐려야 발아율이 높다. 뿐리는 시기는 봄과 가을에 할 수 있지만 주로 봄뿌림을 많이 한다. 가을뿌림은 8월 중순~9월 상순경으로 추위가 오기 전에 짹이 나와 겨울 전에 어느 정도 생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생육 중에는 포기를 나누거나 알뿌리를 쪼개서 증식할 수 있다.

다. 아주심기 및 관리



▲ 두메부추군락

밭의 본포(또는 정원)에 정식을 하기 위해 정식 20일전 쯤 깊이갈이를 하고 10일전쯤 밑거름을 한 후 정지작업을 한다. 정식은 6~7월 평균 기온이 12~24°C인 기간에 하는데 너무 고온이면 수분증발이 심하고 비가 많이오면 과습으로 뿐리가 썩기도 한다. 적당한 재식거리는 15×10cm이며 채소용으로 별도의 이랑을 만들어 심을 때는 이랑넓이 40~50cm로 하여 심는다.

산부추는 생육기간이 길며 다비성 작물이므로 생육 중 비료가 부족하지 않게 유기질 퇴비를 많이 주어야 한다. 산부추는 4~5년간 같은 장소(포장)에서 계속 자라기 때문에 완숙퇴비를 10a당 4,000kg 이상 주는 것이 좋다. 비료줄 때 주의할 것은 뿐리에 비료가 닿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심기 전에 이랑에 퇴비를 뿐리고 흙과 잘 섞은 뒤에 심는다.

라. 병충해 방제

다른 파속식물과 같이 비교적 병충해가 적은 식물이다. 잣빛곰팡이병은 4~5월부터 잎에 발생하며 6~8월 우기에 점차 심해진다. 저온 다습한 봄철에 비가 자주 오면 발병조건이 되므로 적용약제로 예방이 중요하다. 이병된 식물체나 포장주변에서 균핵으로 월동을 하므로 전염원을 제거하고 적용약제를 적기에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.



▲ 두메부추군락